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공식 명칭 “한국새빛가속기(KLS)” 최종 확정

-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로 우수 명칭 5건 선정
- 전문가 검증 및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공식 명칭 최종 결정

【관련 국정과제】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미래를 이끌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공식 명칭을 "한국새빛가속기(KLS, Korea Light Source)"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단은 사업의 상징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명칭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총 1만 3천여 건의 명칭이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투표를 통해 명칭의 창의성·상징성·대중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최종 5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폴라리스(POLARIS) ▲우수상 코스모스 다목적방사광가속기(KOSMOS), 해치(HAECHI) ▲장려상 오창새빛가속기(KONA), 다운빛(Daon-Bit)이다.

*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명(상금 300만 원), 우수상 2명(상금 각 100만 원), 장려상 2명(상금 각 50만 원)으로 총 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우수 명칭이 제안되었으나, 수상작 선정과는 별도로 상표권 등 권리관계, 국내외 유사 명칭 존재 여부, 국제적 활용성 및 식별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향후 수십 년간 국내외 연구현장과 국제협력 활동, 학술논문, 산업 활용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 브랜드의 발굴과 선정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 등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명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공모전 수상작의 상징성과 국민 선호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연구시설의 장기적 활용성과 국제적 식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식 명칭을 "KLS(Korea Light Source, 한국새빛가속기)"로 최종 확정하였다.

확정된 명칭 "한국새빛가속기"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내일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영문 명칭인 “KLS(Korea Light Source)”는 전 세계 방사광가속기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Light Source”를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쉽게 통용될 수 있는 익숙하고 직관적인 명칭으로 선정되었다.

* 포항방사광가속기 “PLS” (Pohang Light Source), 미국 “ALS” (Advanced Light Source) 등

새롭게 선정된 명칭은 앞으로 구축사업 전반은 물론 국내외 홍보, 연구협력, 학술활동 및 각종 공식 문서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공모전과 대국민 투표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 속에 확정된 공식 명칭과 함께 ‘한국새빛가속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연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연구개발정책실	책임자	과 장	조남규 (044-202-4660)
	연구인프라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해광 (044-202-4664)

